

Better Days

"I love the contrast of the packed pool and surroundings with the lonely river in the background of this view in Korea. A stunning example of how a high viewpoint, can offer so much detail and yet still have an overall impact."

- Martin Parr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모순이 생겨났는데, 그중 하나가 긴 노동 시간 끝에 주어지는 짧은 휴가다. 먼 곳으로 떠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힘든 사람들은 긴 여행 대신에 이틀 남짓의 주말이나 짝막한 연휴를 활용해 도시 주변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여하고 지역의 명소를 찾는다.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풍경 속에서 물놀이와 낚시, 눈썰매 등을 즐기면서 가족, 친구, 연인과 추억을 쌓는다. 나는 도시를 둘러싼 다양한 공간과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천천히 프레이밍하며 복잡한 상황이 균형을 이루기를 기다린다. 개인이 소비하는 평범한 여가 시간은 사각의 프레임 안에 모임으로써 수십, 수백 개의 순간으로 확장되고, 배열되어 다층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집단적 여가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의 '실용주의'와 '공동체 지향적 개인주의'라고 불리는 유대감 때문인데, 우선 '실용주의'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일 처리를 빠르게 하는 것을 넘어, 현실의 제한적인 조건에 빠르게 적응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을 처리하거나 최선을 다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능동적인 몰입의 성격을 지닌다. 더불어 '산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는 유교의 현세주의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같은 불교의 허무주의가 우리의 민족정신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낙관적 허무주의'로 진화하였고, 근현대 한국 사회에서 수없이 마주하고 있는 다이내믹한 사건들을 시민들의 참여로 직접 해결하거나 극복한 경험을 쌓아가며 한국인의 실용주의적인 성향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성향은 센고쿠 시대의 대혼란이나 지속적으로 지진을 겪어 온 일본에서 불교에 의해 내세가 강조되어 온 것이나, 국가 간 많은 전쟁과 흑사병 같은 참사를 겪은 유럽에서 기독교의 구원론이 전파되어 현실의 고통을 참고 견디며 형성된 가치관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몇 해 전 이탈리아의 한 철학자는 한국 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극단적 개인주의'를 꼽았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인 점과 세계 주요 도시의 평균 보다 4배 빠른 개방형 Wi-Fi가 제공되는 것을 고려하면 표면적으로 그런 인상을 받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감정이 아닌 타인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애착인 '정情' 문화가 한국인의 대표적인 정서임을 이해한다면 한국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바뀔 것이다. 한편 코로나 시기의 한국의 방역 성공을 두고 프랑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유교문화가 선별적 격리 조치 성공에 기여했으며, 한국인들에게 개인은 집단 다음이다."라며 권위에 순응하는 한국인의 성향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한국의 방역 성공을 '감시국가', '통제 사회', '동아시아적 집단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이 같은 유교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결과를 낸 부분에 주목한 한 방송사와 언론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사회조사에서 '민주적 시민성'과 '수평적 개인주의'가 높기 때문에 시민들이 방역에 적극 참여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참여한 한 사회학자는 '민주적 시민성'이 높은 사람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동시에 공동체 지향도 강하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정情' 문화에 관한 연구는 있어왔으나 '공동체 지향적 개인주의(community-oriented individualism)' 또는 '우리성(we-ness)'과 같은 한국적 집단주의에 관한 연구는 미미했다. '공동체 지향적 개인주의'는 서양에서 정의한 집단주의(collectivism)와는 차이가 있으며 '집단 이기주의' 같은 부정적 측면이 아닌 '정서적 친밀감'을 기반으로 한 '집단 지향'의 성격을 지닌다.

<Better Days>의 사진 속 개별적 여가 활동은 이 '실용주의'와 '공동체 지향적 개인주의'의 토대 위에서 균집을 이루며 자유와 안정을 얻는다. 사실 이런 장면은 한국인에게 너무 익숙해서 거의 의식되지 않으면서도 구성원의 행동이 일정한 방향을 갖기에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외국인이 이 사진을 보고 낯섦과 기시감을 동시에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고대 이집트 무덤의 벽화에서 발견된 연회나 중세와 근대 유럽의 농민을 그린 풍속화에서 접한 집단적 유희의 모습이 동시대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선사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역사적 서사 속에서 문화적 실타래로 엮여 보이지 않게 연결된 인간의 삶은 '공존의 질서' 안에서 서로를 참조하고 보완하며 공동체적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날 누구나 스마트폰 속에 한두 장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이 사진들은, 나에게서는 사진이 찍힌 순간이 아닌 어떤 문제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주관적인 애정의 산물이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실행하지 못하고 판단을 미루어 천천히 고민하는 습관, 촬영 전날 필름 홀더에 한 장씩 필름을 끼우며

현장의 상황을 예상해 보는 순간, 기대를 안고 찾은 현장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 촬영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기억, 촬영을 하고 나면 무사히 현상이 끝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불안의 시간,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 해의 축제나 다음 여가 시즌을 기다리면서 갖는 숙고의 시간 등 더딘 작업의 시간 속에서 지속되는 염려는 어느 순간 작업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진다.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삶의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금, 아날로그 사진 과정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디지털 기기에 의해 사유의 시간을 잃어가고, AI에 의해 인간의 역할이 변화될 새로운 패러다임의 길목에 있는 지금, 인간적 사유를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해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잘 부합한다는 생각도 든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여가 문화를 관찰하며 이 작업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라는 거짓말 같은 시기를 겪으며 모든 것이 나의 착각이었음을 깨달았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찾은 Better Days의 공간들은 하루아침에 폐쇄되거나 한산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Sadder Days의 날이 계속 이어졌다. 이 기간에 '모든 것은 변화하며 정해진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코로나로 인한 무력감 때문인지 이 작업에 대해 무언가 정의하려 했던 나 자신이 설부르게 여겨졌다. 이 같은 내적 갈등 속에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 모습을 평생 지켜보며 기록하는 내 모습을 그려보았다. 코로나 시대 이후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의해 사유의 시간을 잃어가고, AI에 의해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의구심마저 갖게 될 불안한 미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관점이 아닌 좀 더 넓은 범주에서 '인간의 시대'를 하나로 바라본다면 공감과 신뢰를 통해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천동과 번개가 본래 하나이듯 과거의 총합인 현재 속에서 인간과 환경, 정신과 물질, 동양과 서양은 그물처럼 엮인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며, 또 다른 질서를 찾아 진화해갈 것이다.